



“나라 잘 지키겠어요”

군장병들 ‘초파일 간식’에 감사

최전방에 있는 군장병들이 불교여성개발원에 감사의 그림편지를 보내왔다.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황수경)가 지난 5월 중순 초파일 법회에 병사들에게 손수 포장한 간식을 담아 전달한 ‘자비의 선물’에 대한 보답이다.

명상리더십센터와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은 ‘자비의 선물’ 3000개를 포장해 근무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최전방 부대 중에서도 외출과 면회가 불가능한 북한군 철책선에서 근무중인 GOP, GP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글=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인사 66명이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6월, ‘한반도 평화’ 목소리 높다

불교계 등 각계 인사 66명
‘국민통합선언문’ 발표
포교원 평화기원 등반대회
통도사 25일 100일 정진 입제

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북 관계 기본 원칙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끊임 없는 남북 민간 경제교류 협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남북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각계 인사들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적 합의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종교,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66명은 6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선언문’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사회적 공의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선언문에 동참한 불교계 인사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과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범룡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인사들은 선언문에서 “올해로 우리는 분단 68주년, 정전 60주년을 맞았지만 지금도 우리는 통일은커녕 한반도의 심각한 긴장 고조로 전제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남북간 상존해 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때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

한반도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등반대회도 열렸다.조계종 포교원은 6월 16일 북한산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와 조계종 산악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 앞서 서울 도선사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지승동 직할교구 신도회장, 임흥길 조계종 산악회장을 비롯한 불자 산악인 2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등반 범위가 봉행됐다.

이와 함께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6월 25일 경내 설법전에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평화통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점으로 범어서, 해인사 등 전국 교구본사와 주시찰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100일 기도 정진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과 범어서 주지 수불스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도 기도입제에 대거 동참했다.

신종일·노덕현 기자

경허집 등 근대문헌 영역화 사업 ‘본격화’

조계종 총무원이 6월 12일 근대 한국 불교 대표 문헌 영역판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판권위원회에는 현각 스님(동국대 학술원장), 미산 스님(중앙승가대학 총장대행), 주경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법인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등이 임명됐다. 판권위원회는 한국 근대불교의 특징을 드러내는 문헌을 인물별·영역별 등으로 나누어 대표성을 띤 10종을 선정키로 결의했으며, 1년차 사업으로는 1차 번역대상 문헌 4종을 우선 선별했다. 1차 선정된 대표 문헌은 경허 스님의 <경허집>, 용성 스님의 <각해일문>, 이능화 스님의 <백교회통>, 김영수의 <조선불교사> 등이다.

신종일 기자

다시 고개 드는 ‘공직자 종교편향의 악몽’

박근혜 정부 출범 4개월 간 4건... 불교계 대책 필요

이명박 정부 당시 불교계를 공분하게 했던 ‘공직자 종교편향의 악몽’이 친불교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 정부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건의 공직자 종교편향 사례가 발생했다.

가장 먼저 불교계가 현 정부 출범이후 첫 ‘종교편향’ 사례로 규정하고 공식 대응한 것은 지난 5월 있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동회 장엄등 설치 거부였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정종교의 시설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설치를 거부했지만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자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영근 사장직무 대행 당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성대하게 개최한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불교계에 공분을 샀고, 결국 새로 취임한 정찬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6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사과 방문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사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당시 일은 결과적으로 부실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 신인 사장으로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인천공항을 방문해 내년 연동회 전통등 설치 장소, 기간 등 두루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정부 행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과학전문지인 동아시아언스는 6월 11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미래부 특정 종교 임김 강해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5월 초 미래창조과학부 내 설립된 기독교회는 한 달에 1명 이상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1+1운동’을 올해 목표로 하고, 이단에 대한 동향 파악과 공동 대처를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래부 기독교회는 타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직원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하고, 매주 금요일 점심에 정부과천청사나 초소, 공원 등에서 전도하는 한편 월 1회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전도를 생활화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선교회 관계자는 “열혈 신도가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선교회 내에서 상의한 바도 없고 합리적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지만 불교계의 공분은 확산되고 있다.

불교방송 이사장 이번엔 선출될까

7월 1일 제83차 이사회

불교방송 제83차 이사회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는 영답스님이 사임서를 제출해 이사장직이 공석이 된 가운데 정관에 따라 이체원 불교방송 사장이 소집했다. 제83차 이사회는 지난 5월에 열린 제82차 이사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신임 이사장 선출이 핵심 안건이다.

지난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에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스님이 단독으로 추천됐으나 선출방식을 놓고 이사회 간에 의견이 엇갈려 선출하지 못했다.

신종일 기자

이번여름은 삼선을 제대로 배우봅시다 6월간의 깨달음

전문참선수련회

참선 단식

입제부터 회향까지 참선을 40년이상 꾸준히 해온 스님이 직접 화두 참선을 지도합니다

차수	날	짜	선택	장소
수련7차A	6.28	7.3	무단식	활인선원
수련7차B	7.19	7.24	무단식	활인선원
수련8차	7.26	7.31	단식	활인선원
수련9차	8.15	8.20	단식	활인선원
수련10차	8.23	8.28	단식	영명선원

곧바로 강화되는 체질단식 특별회비무대-개산5주년기념

행복재작소 1644-5266

제주 원명선원 경기안성시 흥안동 100-101

활인선원 경기도안성시 죽산면 비룡산

자세한 내용은 www.hwain.net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신간 출간!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선문염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인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31-534-3373 / 010-9043-1016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 - 31종 / 61권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백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 영원한현실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22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선에 찾는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묶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계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기사어록 / 실증실 / 허택신회사 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중 3개국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공경한 33가지 / 108진참회문(한영중 3개국어) / 달마의 일화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주고 서서주고 / 화두(한영중 3개국어)

10권이상 구입시 30% 할인